9강 공(空)과 마음

1. 가는 자는 가지 않는다.

◇ 가는 자는 가지 않는다. 가는 자가 아닌 것도 가지 않는다.
그리고 가는 운동도 아니고 가는 자가 아닌, 제3의 것이 가는 것인가? [MS2.8]

◇ 가는 자가 간다고 하면 두 개의 가는 운동이 있다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.
가는 자를 성립시키는 가는 운동과 가는 자가 간다고 할 때의 가는 운동이다. [MS2.9]

-불교는 고통의 치료학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.

-열반(nirvāṇa) :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,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고통이 없는 마음 상태, 즉 열반(nirvāṇa)를 달성할 수 있다.

-불교에 따르면 고통은 집착으로부터 일어나는 데, 집착은 세상에 실체, 즉 불변하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발생한다.

2. 나가르주나

-자신의 주저 『중론(中論; Madhyamaka-śāstra)』에서 나가르주나(Nāgārjuna; 龍樹, 150?-250?)는 불변하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. 즉 모든 것이 공(空)하다는 생각을 체계적으로 표명한 철학자였다. 보통 불교에서는 불변하는 실체의 자기동일성에 대해 자성(自性)이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. 그래서 보통 공(空)은 무자성(無自性)으로 정의되는 것이다.

3. 공(空)과 중도의 의미

◇ 있음에 집착하면 상견에 떨어지고, 없음에 집착하면 단견에 빠진다.
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있음이나 없음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.[MS15.10]

◇ 자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면 상견에 빠지고,
과거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고 하면 단견에 떨어지게 된다.[MS15.11]

◇ 인연(因緣)으로 생겨난 모든 것을 우리는 공(空)하다고 말한다. 그것은 임시로 시설된 것[假名]으로 이것은 또한 중도이다.[MS24.18]

◇ 어떤 것이든 연기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하지 않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.[MS24.19]

-나가르주나에 따르면 형이상학적 사유는 극복될 대상이었다.

-모든 형이상학은 불변하는 실체를 가정하고, 결국 우리를 집착으로 이끈다.

-형이상학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뉠 수 있다.

불변하는 실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상견(常見), 불변하는 실체가 존재하지만 그의 모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든 작용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단견(斷見)이다. 전자가 있음을 강조하는 영원론이라면, 후자는 없음을 강조하는 허무주의라고 할 수 있다.

4. 인중유과론과 인중무과론

-인도철학 전통에서는 상견은 인중유과론(因中有果論)으로, 그리고 단견은 인중무과론(因中無果論)으로 이해된다. 다시 말해 상견이 원인 속에 그 결과가 미리 내재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면, 단견은 원인 속에는 그 결과가 미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.

-나가르주나는 이 두 입장을 모두 극복해야 중도(中道)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. 결국 중도란 있음을 강조하는 상견과 없음을 강조하는 단견을 동시에 극복해야만 드러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